



갈등을 넘어 보편적 인권 문제로 -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생각열기

Q1-1. 독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1 소녀상, 베를리너의 일상 속으로, 독일 공공장소에 첫 소녀상 건립

독일 수도 베를린의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소녀상은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회(Korea Verband)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코리아협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가 간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전쟁 피해여성 및 여성 인권 문제라는 점을 내세워 베를린 시 관계 기관을 설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독일 연구자와 전쟁 피해를 본 소수 민족의 단체, 현지 예술인 단체 등과 연대하였다. (연합뉴스, 2020.9.27.)

영상1 베를린에 소녀상 건립... 공공장소로는 처음

(KBS뉴스 2020.9.29.)



Q1-2.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위안부' 망언 논문에 일본 학계와 시민 사회가 나서서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2 램지어 '위안부' 논문, 일본 학계와 시민 사회도 "역사왜곡"

일본군'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문에 대해 일본의 학계와 시민 사회도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또 한국, 중국에 이어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도 자신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분노했다.(한겨레신문, 2021.2.26.)

개념잡기 1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

Q2.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볼까요?

([자료1]과 [자료2]를 읽고 대답해봅시다.)

자료1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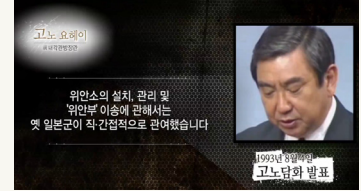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정부는 이른바 중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 (1993.8.4.)

자료2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요약)

한일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나, 그 전제 하에서 '위안부'였던 분들의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다. 한일 양국 정부는 다대한 외교적 노력 끝에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하여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였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대전과 관련된 배상이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러한 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강제 연행':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記述)은 찾아보지 못하였다.
- '성노예':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위안부'의 수에 관한 '20만 명'이라는 표현: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숫자이다. 발견된 자료에는 '위안부'의 총수(總數)를 가리키는 내용은 없고 이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안부' 총수를 확정 지을 수 없다.

(일본 외무성, 2021.4.13.)



담화를 발표하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란 정부 내각 차원의 정식 결의안으로 '국가의 공식입장'을 말한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 (2016.1.18. 일본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발언)

Q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료3]을 읽고 대답해봅시다.)

자료3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취지서(요약)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일본의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역사 교육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후의 역사 교육은 일본인이 계승해야 하는 문화와 전통을 잇고, 일본인의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일본인은 자자손손까지 계속 사과하는 것을 운명으로 짊어진 죄인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냉전 종결 후, 이 자학적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현행 역사 교과서는 과거 적국의 선전을 그대로 사실로서 기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교과서는 우리 조상의 활약에 마음 설레게 하고, 실패의 역사에도 눈을 돌려 기쁨과 슬픔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일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일본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책임을 갖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입니다. (1997.1.30.)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홈페이지. “일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라는 슬로건이 쓰여있다.

Q4. 일본 정부가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를 말해볼까요? ([영상2]를 보고 대답해봅시다.)

영상2 “베를린 소녀상 철거해달라” ... 외무상이 대놓고 요구

(MBC 뉴스데스크, 2020.10.2.)



Q5.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자료4] 발표문의 핵심 부분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료4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문(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 2018.01.09.)

개념잡기 2

소녀상을 지키려는 사람들

Q6. 자료의 사람들은 왜 소녀상을 지키려고 하는지 말해봅시다. ([자료5]와 [자료6]을 읽고 대답해봅시다.)

자료5 “일본군'위안부' 진실 틀어막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난 1일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를 결정하는 독일 베를린 미테 구 의회가 열렸을 때 '우익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이라는 모임의 피켓이 눈에 띄었다. 이 모임 회원 레나테 크리스티안스(65)를 지난 10일 화상으로 만났다.(소녀상 활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여성 대상의 전쟁 범죄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에서 여성이 물건처럼 다루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우리 단체는 더는 이런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역사는 동아시아의 특수한 역사이지만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내가 예전에 생각도 안 해본 문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감사한다.”

(한겨레신문, 2020.12.29.)



‘우익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201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립되었다. 민주적 기본 가치와 다양성 존중을 추구한다. 사진은 2020년 12월 1일 '소녀상 영구 설치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독일 베를린)

자료6 일(日)위안부'피해자 지원 단체 “日정부,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청 철회해야”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3일 일본 정부에 베를린 시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4시 도쿄도(東京都)에 있는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항의문을 일본 내각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는) 가해국으로서 누구보다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이 교훈을 인류가 되새길 수 있도록 솔선해서 기억, 교육, 계승하는 자세를 피해자들에게, 피해국에, 그리고 세계에 보여야 존경받고 존중받는 나라가 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10.13.)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시민들(일본 도쿄)

개념잡기 3

국제 사회의 움직임

Q7. 독일 베를린 시 미테 구 의회가 아래와 같은 결의안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료를 읽고 대답해봅시다.)

자료7 '평화상 보존 - 성폭력 희생자 추모를 위한 시설' 결의 의결(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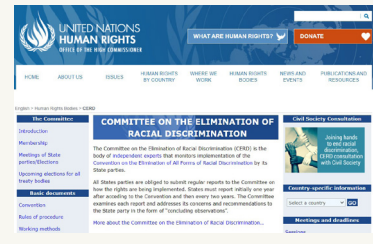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Ecke Bremer가/Birken가에 소위 '평화상' 설치를 위해 제출한 도시 공간 내 예술 특별 이용 신청 허가 철회로 인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행정법원에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나아가 구청은 신청인과 더불어 '평화상'을 관내에 영구 설치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구의회가 관여하게 될 것이다. (근거)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진 동아시아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성착취(소위 '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 관계는 분명하다. 동아시아 역사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예술 논쟁은 베를린의 역사적 배경과 미테 구의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베를린 주뿐만 아니라 베를린 시에 거주하는 시민 사회에서도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 또한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1993년 소위 '고노 담화'를 통해 사실 관계 및 국가 조직의 책임, 도덕적 책임을 시인하였다. 우리는 '평화상'이 전시 성폭력 및 평상시의 성폭력에 대한 토론을 위한 계기로 보고 있다. (베를린 미테 구 의회 5대 선거회기, 2020.12.1.)

Q8. 국제 사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료8]과 [자료9]를 읽고 대답해봅시다.)

자료8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요약, 1996)

137. 일본정부는,
- (a)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 제도가 국제법 상의 일본의 의무에 위반된 것이라는 사실을 승인하고, 그 위반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 (b) 군 성노예제도의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 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배상 및 재활에 대한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 (c) 일본 제국 군대의 위안소 및 다른 관련된 활동에 관해,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문서 및 자료의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d) 일본군 성노예였음을 밝혔고, 입증된 여성에 대해, 공적인 사죄를 해야 한다.
 - (e)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도록 교육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인식을 높여야 한다.
 - (f) '위안부'의 징집 및 위안소의 제도화에 관여한 범행자를 확인하고, 처벌해야 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는 가입국의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단체이다. 모든 가입국은 2년에 한 번씩 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2021년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9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보고서(10차, 11차)에 대한 견해(요약, 2018)

- 27. 일본 정부가 2015 한일합의를 포함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을 취하지 않았음에 우려한다.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적절한 협의가 없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중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인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 28.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모든 피해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보장하고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다음 회기 심의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한걸음 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럿이 한걸음'

Q9. 2021년 1월 한국 법원의 일본군'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시, 램지어 하버드대 미쓰비시 교수의 일본군'위안부' 매춘부 주장 논문 등 이를 둘러싼 역사 부정과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친구들과 토론하고 결과를 말해봅시다.
(아래 제시된 [자료10], [자료11], [자료12] 를 참고하세요.)

자료10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일본 정부 내각부)

일본 정부는 1975년부터 매년 전국 18세 이상 일본 국적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요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한 여론조사로서 매년 달라지는 국제 정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2009년 63.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26.7%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34.9%로 올라갔습니다.(2019년까지는 대면 조사로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비대면 우편 조사로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이 다소나마 개선된 것은 일종의 기저 효과와 더불어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확산한 한류 붐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2021.2.19.)

자료11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학생 긴급 행동(SEALDs)'(일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에 앞서 올 여름에 입을 수영복을 샀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연장은 언제쯤 할까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저는 수영복이나 속눈썹 연장 따위를 고민하는 사람이 정치에 관해서도 입을 여는 게 정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정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상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6.12., 일본 국회 앞 항의 집회 발언)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중 20년 정도 밖에 살지 않습니다.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우리는 모르는 것,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마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앞선 전쟁에서 일본은 이웃 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와 지역을 침략하고 그 일부를 식민지로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와 진지하게 마주하고,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 전후 70년 선언문(일부)

자료12 2020 온라인 한일 학생 공동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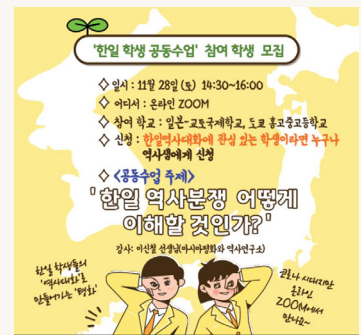
2020년 11월 28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운 한국과 일본의 중고등학생 약 40명이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왜 역사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공동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선생님으로부터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 '식민 지배 기억의 극복', '생명으로 이어진 동아시아' 등에 대해서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참가한 학생들은 공동 수업 이전에 일본 류큐대학의 야마구치 다케시 교수와 '민족과 국가, 차이를 넘어서는 친구 되기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다음과 같이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만 이해했는데 일본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었고 양국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나에게 일본이란 어렸을 적부터 매우 싫어하고 증오하던 존재였다. 일제강점기 때 그런 아픈 역사를 겪었다는 이유로 일본 전체를 다 싫어했는데 내가 오해와 편견의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협력을 통한 상호 연대वाद도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러한 피해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 양국의 적대적 감정에서 벗어나 피해 자체에 주목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요. 국가 감정에 집착해서는 오히려 문제와 피해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즈(SEALDs).

2013년 12월 일본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빚은 '특정비밀보호법'이 통과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모인 일시적 조직. 이들은 민족차별을 비롯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6년 8월 15일 해산하였다.



'한일 학생 공동 수업 참여 학생 모집 포스터'